

경도공장보건회에서 연수를 마치며.....



울산산업보건센터
최수현

본 연수생은 직업병 예방 한일협력사업 관련으로 직업성 질병분야 일본 연수를 3개월간 받았다.

일정중 처음 3주간은 오리엔테이션의 일환으로 일본어 연수 및 일본 문화와 일본의 정확한 이해를 돕고 연수기간 동안 생활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 기본적인 연수내용의 소화를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면을 들여다 보자면 일본 그 자체의 이해를 돕고 그 일본을 연수생들의 가슴에 심어 주고하 하는 JICA(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의 세심한 프로그램들에 경이로운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게 하는 세심한 배려들이 내포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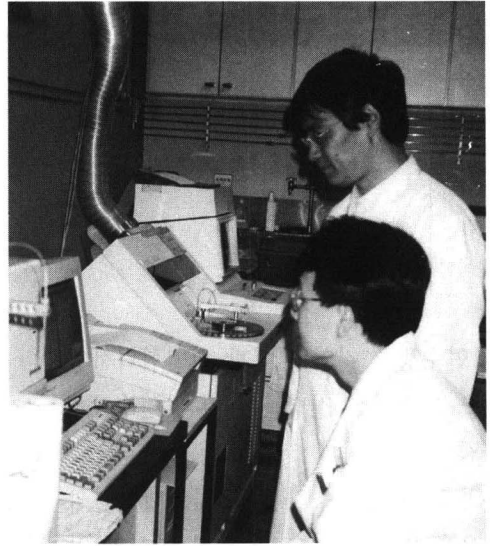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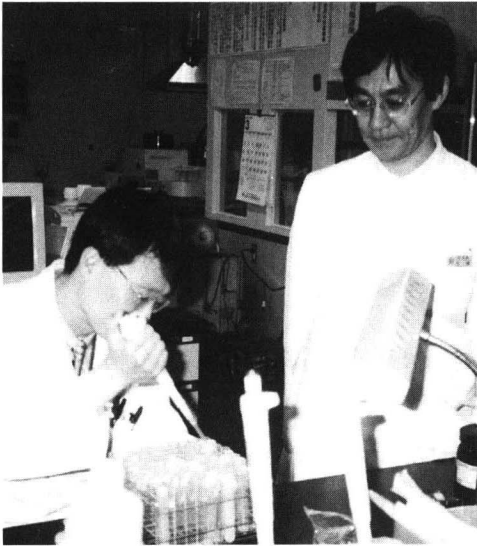
JICA의 사업내용은 국제협력사업단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광범위한 내용으로 전세계의 개발도상국들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3주간 머무른 OSIC(Osaka International Center)의 경우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아르헨티나와 같은 남미의 국가들, 중남부 아프리카의 국가들에서 온 다양한 직종의 연수생들이 환경분야, 의료분야,

국가개발분야, 행정분야 등등의 다양한 장르별로 연수를 받고 있었으며 일본의 오늘날이 국가적인 경제력과 국가 경쟁력 분야에서 왜 그토록 강할 수 밖에 없는지의 본질적인 해답을 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았다. 그것은 단지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지 않으면서 무형의 자산들에 꾸준한 투자와 관리를 해온 것이 오늘의 일본을 경제대국으로 만들었으며 이러한 무형의 자산들이 충분한 결실로 수확되고 있음을 확연히 깨우쳐 주고 있었다.

본인의 연수 분야는 직업성 질병 관련으로 직업병을 유발하는 중금속 및 유기용제 분석이론 및 분석기술을 폭넓게 습득하여 이와 관련된 중간대사산물의 생성 및 유출경로 등을 이해함으로써 중금속 및 유기용제에 중독되어 직업병으로 전이되기 전에 조기에 발견함을 목적으로 한 본 연수를 위하여 요꼬하마의(재단법인) 가나가와현 예방의학 집단검진센터로 이동을 하였다.

센터의 경우 일본 내에서도 규모면이나 업무의 내실면에서도 상위 그룹에 속하는 기관으로서 건강진단사업, 학교보건,



슈이시와타 과장으로부터 교육받으며 AA기기와 델타-ALA 분석에 대해 실습하는 장면.

지역사회보건, 산업보건 및 생활환경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기존의 한국 연수생 두명이 다녀 갔던 관계로 연수 준비 및 한국인에 대한 친숙한 분위기 속에서 연수를 받을 수가 있었다.

본인은 센타내에서 생활환경 및 작업환경측정 부서인 검사3부로 배속되어 유기용제 관련 중간대사산물의 분석을 위한 기초적인 이론 및 분석실습을 하였으며 한국과 일본의 특수검진 해당 항목간의 상이성으로 인해 현재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관련 법규에 규정된 항목들 위주의 실습을 받기로 하였다.

먼저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업환경측정업무에 동행하기로 하고, 관련 사업장 내에서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기용제 관련 역학조사의 일환으로 특수차량 생산 공장의 도장 부서 및 자동차

생산 부서의 라지에타 생산 공정중에서 납 관련 공정과 크롬 관련 공정을 중심으로 도금업체의 전 생산 공정을 함께하며 측정업무를 견학하였다.

역학조사를 위한 과정과 일상적인 측정업무 속에서 그들의 의식 밑바탕에 흐르는 업무에 대한 진지함과 사업장을 방문할 때 반드시 정장을 하고 상견례후 작업복으로 갈아 입는 섬세함과 측정후 담당자들과의 업무보고시 상호간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는 오늘날의 일본 산업보건의 현주소를 극명히 표출하고도 남음이 부족함이 없었다.

다음으로는 분석업무에 앞서 일본내 직업병 관련 법규 및 현재의 업무수행 형태에 대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이론 교육을 받았으며 현재 일본에서 실시 하고 있는 유기용제중독 예방규칙에 근거 대사

산물 측정 8항목 즉, 마뇨산(Hippuric Acid), 메틸마뇨산, 만델릭산, T.T.C., T.C.A., T.C.E., 메틸후루아미도(N.M.F.) 등의 물질에 있어 대사산물의 분석 및 검사 방법상의 비교분석과 DATA상의 정확도와 상관성을 찾아보기 위한 작업을 수행 하였으며, 연중독 예방규칙에 근거로 뇨중 델타아미노루블린산의 분석을 델타-ALA 서방우구법, 델타-ALA Column Test법, 적혈구중 프로포피린(FEP)정량 분석을 실습하였다. 한편 특정화학물질 관련 중독 예방규칙에 근거로 혈중Mn, Cd, Cr, Be 등의 검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었으나 당시 의뢰 건수가 없던 관계로 관련 업무의 설명만으로 만족을 하여야 했다.

아울러 정도관리는 전국노동위생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었으며 정도관리 항목은 상기의 유기용제 관련 8항목 및 혈중 납 관련 2항목이 시행되고 있었고 검사 방법에 대한 참고자료 및 참여 기관들의 성적을 통계처리하여 성적이 미흡한 기관들에 대하여는 집담회를 통한 원인 분석 및 방향을 제시하여 주는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었다.

어떤 강의 속에서 수 십년전의 경제성장 과정중 발생되어졌던 Cd 중독 사건 및 Hg 중독 사건들은 과거에 일본에서

유일하게 발생이 되었던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경제성장과 직업병 예방 및 환경관련 부분에서의 오늘의 일본이 있게 하였음을 강조 하였다.

연수 과정에서 중요하게 느낀 점들은 첫째로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대사산물의 분석방법 및 특수검진 관련 항목들의 체계적인 정립 및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실무 종사자들이 소화해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순수기능을 가진 기관에서 분석방법 상호간의 검증 및 이론적인 체계의 보급 또한 주요 하리라 생각하여 본다.

둘째로 어떠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과정들 속에서 얼마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느냐하는 부분인 것 같았다.

끝으로 연수 기간동안 업무적인 지식의 전달만으로 끝내지 않고 연수생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여러 면에서 신경을 써주신 JICA 관련직원 및 센타의 여러 직원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앞으로 보다 더 많은 교류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여 본다.

